

11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7

가정예배

사사기 ·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 디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1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사기 ·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 디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현의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매일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⑥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 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⑦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 ⑧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낱골시설 건립과 공사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조주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9:15)

성육신의 기적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비록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더라도

겸손한 믿음으로 베들레헴의 구유로 달려갑시다.

삭개오를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괴수들을 만나 주시고 은총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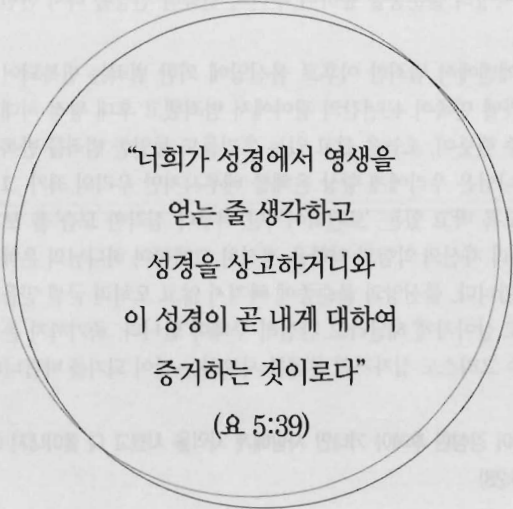
나의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만왕의 왕께 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좁은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갑시다

2007년 1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정착 전쟁에서 거민들을 다 쫓아 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와는 달리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나안 정착 전쟁에서 유다지파와 요셉지파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믿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1~26절), 가나안 거민들을 제대로 축출치 못한 이스라엘 타 지파들의 불신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36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의 완전 정복과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 백성의 불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불신앙에 의한 범죄는 반복되어 왔으며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의 광야에서 범죄했고 후대 왕정 시대의 백성들도 불순종 했듯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의 죄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보편적이지만 너무나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정직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굳센 믿음과 분명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삿 1:28)

기도 제목 ①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소서. ② 총현의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열 두 지파는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남아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마지막 정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징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죄를 뉘우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된 영적 원인(1~10절)과 범죄 순환의 기본적인 모습(11~23절)을 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사시대를 단지 범죄와 저주의 시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시대는 징계의 시대인 동시에 연단의 시대였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 5:20)라는 말씀 안에는 ‘죄를 많이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회개를 권하시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암울했던 시대였으나 오히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자비와 긍휼로써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삿 2:16)

기도 제목 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따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성실하게 준행하지 못하므로 시험에 빠지고 안식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신음과 괴로움뿐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삶 속에서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하며 현실에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웃니엘과 에훗을 사용하여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본다면, 그들은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삿 3:9)

기도 제목 ① 구원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신자간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과 삼갈을 세워서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범죄하기 시작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하솔왕 야빈을 들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20년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를 토설하는 자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호와 자비를 결코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17절부터 42절에는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비참한 죽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스라는 드보라의 예언대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고 맙니다. 이로써 모든 전쟁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삿 4:23)

기도 제목 ① 동일한 악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감사로 충만한 성찬식이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드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통해 말 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습니까? 그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된 사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곤경을 당하나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것 같으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때때로 시험과 환난에 빠져 주님을 배반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며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너희 왕들이 들으라 방백들이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삿 5:3)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모든 천국일꾼들이
자기를 부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
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드보라 이후 40년을 평안하게 지낸 뒤 이스라엘은 또 다시 타락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앞서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인간은 대부분 징계를 당할 때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11~24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실, 기드온은 미약한 자였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또는 직분자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오직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루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삿 6:15)

기도 제목 ①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이 영혼 구원의 열심과 주 안에서 받는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은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 중 수많은 무리의 군사를 되돌려 보내시고, 오직 300명의 용사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3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군대를 향아리와 나팔과 횃불만으로 전멸시키셨습니다. 만일, 많은 수의 군사로 미디안군대를 물리쳤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군사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큰 군대를 물리치심으로써, 오직 여호와와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탁월한 판단력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승리의 주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사탄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매우 교활하게 자신을 빛의 천사인 것처럼 꾸며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사탄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쳐부수는 무기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나팔과 횃불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복음의 나팔과 진리의 횃불만으로 사탄과의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함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장이십니다.

“삼백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향아리를 들고 향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삿 7:16)

기도 제목 ① 오직 복음과 진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출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미디안과의 전쟁이 마무리 됨과 그 이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고 사사가 되어 미디안 군대를 소집할 때에,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아셀지파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불렀습니다. 반면에 에브라임지파는 나중에 불려서 전쟁에 참가시킵니다. 이에 에브라임지파는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게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공로가 아님을 아는 기드온은 겸손히 에브라임지파의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빌 2:6~8)

특별히 4절부터 21절에서는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당연히 이스라엘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적인 상황만을 보고 거절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은 기드온에 의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회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큰 힘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진정한 구주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날 동안 사십 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삿 8:28)

기도 제목 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봉사위원회에 속한 자원봉사부원들의 모든 섬김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기드온은 사사로서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많은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큰 재앙의 불씨가 됩니다.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낳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을 진멸하십니다. 이러한 비극의 불씨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기드온의 축첩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교만과 욕심이 앞서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겜족속도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잘못을 범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록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출세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악행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거짓된 동기와 욕심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칠십 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삿 9:56)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에는 다시 평화가 도래하였습니다. 이 장은 아비멜렉의 사후에 돌라(1~2절)와 야일(3~5절)이 연속하여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써 45년 동안을 태평하게 보낼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 백성들의 회개'라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돌라와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패역해져서 각종 이방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는 이러한 우상숭배가 어느 정도 꼬리를 감춘 듯했으나 영적지도자이며 정치지도자인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우상숭배에 빠져 영적인 침체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대적들의 손에 빠진 이스라엘은 다시금 평화를 갈구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압제와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였습니다.(15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망하시며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삿 10:13)

기도 제목 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② 모든 직분자들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전반부(1~11절)는 길르앗의 서자 출신인 입다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추대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암몬 왕과 입다가 요단 동편 땅의 소유권을 놓고 담판을 벌인 사실(12~28절)과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입다가 경솔하게 서원했다가(29~33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서원대로 자신의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 사실(34~4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매우 독특한 사사였으며 다른 사사들과 달리, 하나님이 먼저 세워주심으로 사사가 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전투 지휘관으로 먼저 선정한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추인해 주시는 형식으로 사사가 된 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비록 그 동기는 열정적이고 순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백한 율법을 어기는 우를 범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입다는 가장 고귀한 인명을 미끼로 이방신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이방의 우상숭배와 여호와와 절대신앙을 혼동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소유치 못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사로 들어 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속사의 도구인지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들을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인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사를 끊임없이 그리고 빈틈없이 진행하심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삿 11:32)

기도 제목 ①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주일예배와 교회학교 집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에브라임지파 사람들의 불평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교만함과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도 승리의 열매를 나눌 때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입다를 비롯하여 입다를 따르는 길르앗 사람들을 근거 없는 말로써 비방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는 야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4절) 이들의 어리석은 불평 때문에 에브라임지파 가운데 4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욥 5:2)라는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에브라임이 길르앗 자손들을 비방한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승리를 쟁취한 길르앗 자손들의 영광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악한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선한 마음과 전심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노력 없이는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영광만 탐하면 에브라임처럼 남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악한 마음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에브라임지파의 간사한 행동과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점검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 번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툰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삿 12:2)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마음과 입을 다스려 주사 불평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중인 수양관 · 본당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임산, 엘론, 압돈 치하에서 25년간 태평성대를 누린 이스라엘은 다시 금 영적으로 헤이해져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1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4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와 사사는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잉태치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2절)에게 임하여 그녀가 잉태할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또한 태어날 아기는 나실인이 되어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만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 사사, 예언자들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도 그러했습니다. 다만 인간이 눈이 어두워서 빛 안에 거하면서도 그 밝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활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마치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라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소망을 잃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은총을 누리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삿 13:24)

기도 제목 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젊은이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본문/삿 14장 찬송가/410장

14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삼손의 활약상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초반 부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삼손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자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했던 딘나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한 블레셋 처녀를 보고 결혼하고자 그 부모에게 허락을 구합니다.(1~2절) 하지만 삼손의 부모는 그 여인이 이방 여인임을 이유로 처음에는 반대하였지만 삼손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결국 허락하고 맙니다.(3,5절) 삼손이 이처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그 여인의 미모에만 이끌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호감을 산 후, 적당한 기회를 봐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4절)

비록 삼손의 계획 자체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 하나님의 뜻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행위와 기타 사악한 풍습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통혼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특히, 나실인이었던 삼손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통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삼손은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되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삼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딘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삿 14:1)

기도 제목 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아내의 배신과 블레셋 동무들의 기만에 분노를 느끼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딘바로 내려갔지만 삼손은 장인으로부터 그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1~2절) 이에 이미 수수께끼 사건으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던 삼손은 이것을 기회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합니다.(3절) 그리하여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 둘씩 꼬리를 묶고 거기에 화를 달아 곡식밭으로 쫓음으로써 블레셋의 온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모든 곡식 및 감람원을 불살라 버렸습니다.(4~5절) 이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화형에 처하였습니다.(6절) 이에 격분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에담바위 틈으로 피신하였습니다.(7~8절)

삼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섭리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인간적인 약점이나 공로로 인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장단점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라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성을 깨우치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화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은총으로 주어진 믿음 가운데서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되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삿 15:7)

기도 제목 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2008년 선교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행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일천 명이 나 죽이는 큰 역사를 행했지만, 여자에 대하여 여전히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누설하였음은 물론 들릴라의 잔꾀에 의해 그 머리털이 잘려지는 치욕을 받았 습니다.(6~19절) 결국 삼손이 나실인의 울레를 범하므로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그는 큰 힘을 상실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 멧 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20~22절) 이에 삼손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였고(28절), 다시금 힘이 회복되어 다곤신 전을 무너뜨림으로 그곳에 모인 삼천 명의 블레셋인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29~31절)

이러한 삼손의 최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비록 삼손이 정욕에 사로잡혀 계속적으로 실수했으나 그가 진정으로 통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삼손 자신의 명예는 물론 훼손시켰던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비록 약하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들어 쓰시며 구원과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일순간 걸길로 나아갔을지라도, 회개하며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더 좋은 것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써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며 받으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낫줄로 매고 그로 옥 중에서 멧돌을 돌리게 하였더라”(삿 16:21)

기도 제목 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충현 찬양의 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오직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가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만듭니다. 거기에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도록 구별된 레위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우상숭배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아 율법을 철저히 범합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미가'라는 사람의 신상 제작과 신상 숭배에 관한 기록(1~6절)과 유다지파 소속의 한 레위 소년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과정을 기록(7~13절)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혼란과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순종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을 영육간의 암흑 상태로 몰아넣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가를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통해서라도 이기적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종교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거나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엡 2:9)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절실합니다. 죄악의 혼돈에 빠진 우리를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삿 17:5)

기도 제목 ①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석하여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단지파가 아모리인들로 인해 산지로 물러나면서 그들의 영토는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아모리인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의 경계(수 19:40~46)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방비가 허술한 라이스 땅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해 가게 됩니다.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내는 도중에 미가의 신상과 레위 소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1~10절) 라이스 땅 정복 전쟁을 행하러 가면서 레위 소년과 미가의 신상을 만난 그들은 그 신상을 약탈하여 자기 지파를 위한 신상으로 숭배하게 합니다.(11~20절) 단지파는 신상을 탈취 당한 미가의 항의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무방비 상태의 라이스를 정복한 후 계속 그 신상을 섬겼는데, 거기에는 모세의 증손자까지 있었습니다.(21~30절)

후에 역대기 저자는 언약의 계보를 소개할 때 단지파의 족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기자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 십사만 사천 명의 인원수를 말할 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는 모두 언급하면서 유독 단지파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파의 우상숭배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종국은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모습이 현대판 우상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삿 18:31)

기도 제목 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여 주소서. ②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및 가족연합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동족상잔 전쟁의 발단을 보여 주며 개인의 윤리적 타락(1~3절), 행음한 딸에 대해서도 아버가 전혀 책망치 않는 가정의 윤리적 타락(4~9절), 기브아 비류들과 같은 악한자들을 방치함으로써 마침내 집단 강간치사라는 사건까지 야기하도록 만든 사회의 윤리적 타락(10~26절)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브아인들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쪼개어 각 지파에 두루 보낸 사실(27~30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역이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대로 행하도록 버려둔 자들의 실상은 바로 이와 같은 심각한 부도덕과 증오와 혼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롬 1:24~32)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존재의 기원이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을 돌아볼 때 기브아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십자가 신앙의 변질은 우리 사회의 타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됨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살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삿 19:1)

기도 제목 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레위인의 첩 관련 사건은 이스라엘 전 지파의 동족상잔 전쟁으로 비화됩니다. 기브아인들의 비행에 대해 이스라엘 총회가 징계를 결의하는 과정(1~11절), 기브아인들에 대한 총회의 결의에 대해 불복하고 오히려 총회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베냐민지파의 강경한 태도(12~16절), 이스라엘 총회가 두 번에 걸쳐 베냐민지파에게 패배하고 여호와께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17~28절), 그리고 총회가 마침내 베냐민 군대를 파하고 그 지파 전체를 말살하고자 시도하는 장면을 기록(29~48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경험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공동체 의식이 와해되고 총회의 결의에 대해 베냐민지파가 강경하게 반발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정적 원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내산 언약과 그것을 근거로 한 율법을 받은 하나의 선민 공동체라는 의식을 함께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 지파의 이익과 주도권 쟁취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들이 함께 선민이 된 구속사적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당장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의 이익에만 급급하였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시야가 세상에 고정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 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삿 20:11)

기도 제목 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보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와 모든 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총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전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냐민지파의 회복 대책을 논의하여 베냐민지파를 유지시키며 민족 공동체도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끝맺게 됩니다. 비록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재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악순환을 계속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며 한번 택하신 백성을 한 지파도 낙오 없이 계속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5절에서 위기로부터의 일시적 구원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개인이나 공동체의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베냐민지파와의 전쟁 동기, 과정, 전쟁 이후의 수습 결과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총회는 베냐민지파에 대한 성급한 전멸 계획을 곧 후회하고, 베냐민지파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납치라는 모순 된 행위를 저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회복시킨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결코 완전하고 영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분열과 반목을 계속 일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혼돈과 분열이 해결되어 평화와 행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인간끼리의 이 세상에서의 타협이나 편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통해 성취된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꺾이 나게 하셨음이라”(삿 21:15)

기도 제목 ①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케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는 천국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에게 권면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교역자들이 다양한 신분과 연령층의 신자들을 어떤 태도로 대 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1~2절), 과부들(3~16절), 장로들에게 대할 태도(17~25절) 등으로 바울이 특별히 과부와 장로에 관계 된 내용에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이 양자의 처우 문제가 교회 부흥에 중요한 관건이 되었기 때문인 듯 보입니다. 특별히 교역자는 모든 계층의 교인들을 자기 독선적인 권위 취향과 성격 아래 속박 해서는 안 되고 편견이 없이 모든 계층의 교인들 아래 자신이 겸손히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위치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역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동시에 이 땅의 못 심령들을 하나님 께로 인도해야 하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에게 절대 요구되는 것은 거룩과 순종입니다.

십자가에 바로선 참된 교역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그들이 중심되어 사역을 감당해 간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한번 왕성해 기쁨의 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잘 다스리시는 장로님들이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교역자들, 여러분을 대신하여 회개할 자인 것처럼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서 얼마나 기도로 협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딤편 5:17)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삶이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② 126개 전도회 회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더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과 상전의 올바른 관계(1~2절), 교역자가 항상 경계해야 할 이단과 물질에 관해 주의와 그 대처법으로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3~10절) 그리고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울 것(11~16절), 부자들을 경계할 것(17~19절), 거짓 지식을 피할 것(20~21절) 등을 교훈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훼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에서 상사를 존경하고, 직원을 아끼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1~2절) 투기와 분쟁과 훼방과 악한 생각 나는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여 생긴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3~5절) 범사에 감사함으로 만족할 줄을 알면 모든 일에 다툼이 없으며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면 삶의 평강은 깨어지고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6~10절) 신앙생활 중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 그리고 싸워야 할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11절)라고 말합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딤편 6:12)

기도 제목 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주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생명의 약속’ 대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1절), 동역자이자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일컬어서는 ‘사랑하는 아들’ (2절)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에 매여 있던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7절)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합니다.(8절)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복음의 길을 건다가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니 결코 낙심하지 말고 처음과 같이 힘차게 복음의 길로 달려가십시오.

바울은 성도의 일차적인 의무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11절) 또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뢰함을 배우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게 됨을 말해 줍니다.(12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이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13~14절)며 디모데가 복음에 대하여 취해야 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딤후 1:10)

기도 제목 ①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신령한 예배로 나아가는 주일이 되도록 준비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1절)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힘입게 될 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명합니다.(3절) 그런 다음에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5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6절)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든 변함없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고난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8절) 바울 자신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9절) 이 고난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더불어 받을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11절)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그 영광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마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4)

기도 제목 ① 진리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욱 견고해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되는 모든 교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말세에 관하여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1절) 바울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열 아홉 가지 예를 듭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기중심적이고 현실과 물질 중심적이며, 쾌락을 사랑하고 권위에 도전적이며, 자기가 누리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배반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2~4절)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언급하면서 신자는 거룩한 영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5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마음이 완악해지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살던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불릴 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였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때보다 지금이 더 죄악이 극심한 마지막 때요, 영적으로 더 혼탁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하게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변덕이 많고 잘 흔들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붙들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기도 제목 ① 진리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 앞에서 디모테를 향하여 엄하게 말합니다.(1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2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따르며 허탄한 이야기 듣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입니다.(3~4절) 심지어 자신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혼자입니다. 데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으며,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동역자입니다.(엡 2:22)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기도 제목 ① 복음의 온전한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② 2008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그레데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논쟁과 거짓 교훈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부류가 할레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 믿기는 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행함도 반드시 있어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10절) 이런 가르침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만 얻는 것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엡 2:8)

이러한 이단들은 신학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며 경건한 척 하였으나 실상은 탐욕에 눈이 멀어 온갖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11~12, 16절) 이단으로 인해 그레데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레데교회의 사역자인 디도에 명하여 복음에 합당한 교회 지도자를 세울 것과(5~9절),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짖고 경계할 것(13~16절)을 명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며, 그 열매를 보고 그 정체를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 7:15~23) 우리 믿는 자들은 이단의 속성을 분명히 깨달아 미혹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능히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딤후 1:16)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시에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신앙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0절까지는 교회 안의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5절에서는 성도의 신앙 교육에 있어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성도의 성화의 동기와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화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성도는 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롬 3:23~24) 여전히 부패한 죄성을 지닌 자들로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야 합니다.(14절)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둘째, 성도의 성화는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연령과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로 예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성화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14절)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또한 죄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어 거룩한 삶과 헌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룩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14)

기도 제목 ① 복음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능력있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장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목회자가 각 계층의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양육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 된 자로서의 마땅한 의무(1절), 모든 불신자들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2~8절), 이단사상을 가진 자들에 대한 태도(9~11절),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12~15절) 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인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과 정결한 삶을 견지해 가야 하는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시민 된 자로서의 의무에 성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입니다.(마 28:18~20) 그러므로 성도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마 5:13~16), 아직도 죄악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슨 일에 제일 큰 관심을 기울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기도 제목 ① 죄로 가득한 세상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구역예배교재

11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라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소망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주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총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죄 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은총을 사모하며 겸손히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주시며, 은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1102	롬 10:9	주의 만찬	대속의 은총을 새기며 믿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자
1109	눅 19:1~10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기꾼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1116	고후 9:15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자
1123	시 118:24~26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영생을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자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주의 만찬

| 초 점 |

대속의 은총을 새기며 믿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자

| 찬 송 |

찬송가 282장 유월절 때가 이르매

찬송가 284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로마서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주의 만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임박한 죽음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자신의 몸이며, 잔은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6:26 /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_____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_____ 하시고

마 26:27~28 / 또 _____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_____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_____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홍청망청 거리는 세상의 축제와는 다른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통해 자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라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게 됩니다.

롬 10:9 / 네가 만일 네 으로 예수를 로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에 믿으면 을 얻으리니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은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믿음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엡 2:8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미래를 위해 부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의 삶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세밀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나누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라

주의 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게 합니다.

고전 1:18 / _____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_____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_____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주의 만찬을 통해 위로와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전 11:24 /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_____
이것을 행하여 _____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고전 11:25 /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_____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_____ 하셨으니

※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대속의 은총을 깊이 새겨라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전 11:26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의 만찬의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 이것을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자신에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때가 차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개의 본질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행하셨고, 그 명령에 복종하셨으며, 그 형벌을 모두 도말하셨습니다.

갈 4:4~5 /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래 있는 자들을 하시고 우리로 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빌 2:6 / 그는 근본 하나님의 시나 하나님과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路

예수님은 큰 수치와 심한 고통을 견디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희생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피 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 1:14 / 말씀이 육신이 되어 _____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_____

엡 2:16 / 또 _____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_____

※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의 만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주의 만찬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주의 만찬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나아오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깊이 깨닫는 주의 만찬이 되게 하소서
2.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만찬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소서

2과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기꾼

| 초 점 |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 찬 송 |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 본 문 | 누가복음 19:1~10

①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②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③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④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리고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끔찍한 도시에 사는 악한 죄인이 구원 받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지나가셨습니다.

눅 19:1

이처럼 구세주가 찾아오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죄인들이 변화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눅 19:10 / 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려 함이니라

※ 교회주변 전도나 단기선교를 통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께
서 구원해 주신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부유한 세리는 심각한 부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사랑했고, 돈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를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눅 5:30 / 바리새인과 제회 서기관들이 _____
_____ 너희가 어찌하여 _____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눅 19:2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을 착취하고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많은 돈은 마음의 빈 자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삭개오와 같이 언제나 실망하게 됩니다.

딤후 6:17 /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을 높이지 말고
이 없는 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께 두며

※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눅 19:3 / 저가 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가 작고
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 자유 얻기를 원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때문에 앞이 가려져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주된 장애물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삭개오는 핑계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존심과 명예를 던져버린 채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눅 19:4 /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_____ 이는 예수께서 _____

렘 29:13 / 너희가 _____ 나를 만나리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눅 19:5 / 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에 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나무 아래로 내려올 것입니까? 아니면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서, 음식을 준비할 돈이 충분치 않아서, 또는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예수님을 맞을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까?

눅 19:6

※ 주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주님께 주로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 습니다.

눅 19:7 / 못 사람이 보고 □□거려 가로되 저가 □□의 집에 유하러 들어 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진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들은 오히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예수님의 결정을 비난했 습니다. 삭개오처럼 가난하고, 죄에 대해 애통해 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리를 찾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 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막 7:28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삭개오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눅 19:8 /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_____ 내 소유의 절반을 _____ 만일 뉘 것 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_____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사기꾼을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 리의 죄악 된 본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눅 19:9 / 오늘 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의 임이로다

요 1:12 / 하는 자 곧 그 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 되는 를 주셨으니

※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죄인은 구원과 소망,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2.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핑계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3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 초 점 |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자

| 찬 송 |

찬송가 306장 감사하는 성도여
찬송가 207장 주 나에게 주시는

| 본 문 | 고린도후서 9: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진정한 신자들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출 15:2 / 여호와와는 _____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_____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행 16:25 / _____ 바울과 실라가 _____
_____ 죄수들이 듣더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불평하게 됩니다.

※ 이번 주간 주님께 감사드렸던 일과 원망·불평 했던 일에 대하여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시 100:4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롬 7:25 / 우리 ☐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께 ☐하리로다 ...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가슴은 감사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행 9:5 / 대답하되 _____ 가라사대 _____

※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그 순간을 기억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감사는 물질, 명예, 또는 다른 세상적인 것 때문은 아닙니까?

고전 15:57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노니

고전 15:51~53 /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하리라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롬 3:28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감사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 1:3 / 내가 _____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롬 1:8 /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_____
_____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_____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는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 13:34~35 / 새 ☐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하라 내가 너희를 ☐
☐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너희가 서로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인 줄 알리라

※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군가 돌을 던지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모욕을 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파산 상태가 되어 어려운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욥 1:21 / ...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_____ 여호와
의 이름이 _____ 하고

십자가로 路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성한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둡고, 낙심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믿음의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십시오.

고후 9 :15 / 말할 수 없는 그의 를 인하여 께 하노라

합 3:17~18 / 비록 무화과나무가 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이 없으며 밭에 이 없으며 우리에게 이 없으며 외양간에 가 없을찌라도 나는 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 한 해 동안 자신과 가정에 허락해 주신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고,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게 하소서.
2.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3.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4과 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 초점 |

영생을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자

| 찬송 |

찬송가 108장 구주 탄생하심을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 본문 | 시 118:24~26

²⁴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하고 기뻐하리로다 ²⁵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
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²⁶여호
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마음으로 路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실 미래의 어느 날을 바라 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기쁨에 넘치는 시편은 어떤 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그 날입니다.

시 118:24 / 이 □은 □□□의 정하신 것이라 이 □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 85:10~11 / □□과 □□가 같이 만나고 □와 □□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는 땅에서 솟아나고 □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

크리스마스는 구원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날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연합하고 의와 화평이 조화를 이룬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날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날이었건만, 그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방 한 칸도 내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눅 2:7

크리스마스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구세주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기는커녕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심지어는 비난까지 합니다.

※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기적의 날

이 날은 창조주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기적의 날입니다.

히 1:2 / 이 모든 날 마지막에 _____ 이 아들을
_____ 또 저로 말미암아 _____

미 5:2 / _____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
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_____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창조주이십니다. 이 기적은 축복받은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성경을 끼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를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 53:2 /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
같아서 고운 ☐도 없고 ☐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눅 10:21 /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롭고 ☐있는 자들에게
는 숨기시고 ☐☐☐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이니이다

※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
적인 예를 들면서 나누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날

이 날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마 2:10

눅 2:20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팔에 안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자비로우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눅 2:29~32 /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을 보았사오니 이는 ☐☐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니이다 하니

※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날

이 날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롬 3:23~24 / _____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_____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_____

아담을 통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으로써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 날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롬 3:10~12 / 기록한바 은 없나니 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하게 되고 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도 없도다

눅 1:35 / 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와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안겨다 주었지만, 동정녀 마리아는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비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롬 8:3 /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_____
_____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_____
_____ 육신에 죄를 정하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이 날이 주의 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빌 2:7

※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에게 주는 기쁨과 소망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분은 심지어 아기였을 때에도 만물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연약하고, 병들고,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들을 치료하실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시 33:1 /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은 정직한 자의 히 할바로다

사 53:5 / 그가 찔림은 우리의 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을 입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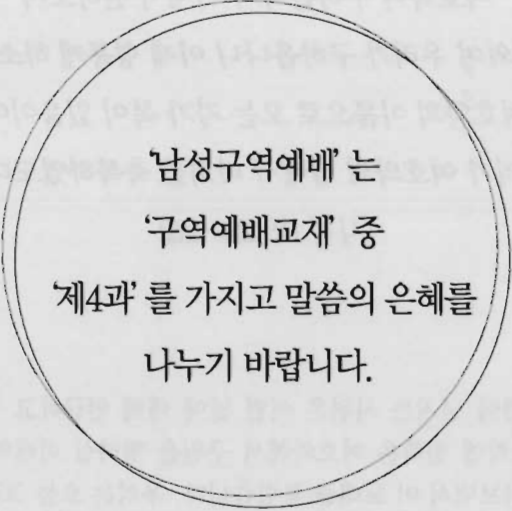
※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날을 정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값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이 날 곧 크리스마스를 축하합시다.

| 간절한 기도 |

1.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기적의 사건을 겸손한 심령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3.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²⁴⁾ 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²⁵⁾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²⁶⁾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24~26)

이 기쁨에 넘치는 시편은 어떤 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실 미래의 어느 날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가 그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늘로부터 구원이 이 땅에 내려온 날입니다. 이 날은 은혜와 진리가 연합하고 의와 화평이 조화를 이룬 날입니다. 세상은 이 날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돈을 버는 데에만 관심

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건만 아무도 그분에게 방 한 칸도 내어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 드리기를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당시의 왕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모든 성경학자들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자신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았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도 전혀 흥분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파티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들을 위한 날이었건만, 그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시편 85:10~11은 말합니다. “공호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 이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세주를 이 죄악이 가득한 땅, 곧 마귀의 본거지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운 손길로 팔을 벌리셨건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심지어는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기적의 날

여러분은 이 모든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록 자신을 낳추시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자신의 아기가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았고, 믿음으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그녀는 믿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1~3은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넓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일평생 하루 24시간 내내 성경을 끼고 산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며 기도 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 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눅 10:21~22)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날

누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찾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은 찾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 2:10~11)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팔에 안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눅 2:29~32) 겸손하고 자비로우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직 이들만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 중에 속해 있습니까?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비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그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이 날이 주의 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자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 아담을 통해 죄가 인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미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3:10~12은 말합니다.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한 로마서 3:23~24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와는 모든 인류를 죽음에 팔아넘겼지만, 동정녀 마리아는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마서 8:3은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모두 함께 축하해야 할 날

우리 모두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시 33:1) 모든 약하고, 병들고,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들을 치료하실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우리에게 구속자가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심지어 아기였을 때조차도 만물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1~3은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구유 안에 누인 아기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디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린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모든 것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온 우주는 그를 거역할 수 없었고, 비록 연약한 인간의 아기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아기를 가슴에 품고, 순전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만왕의 왕,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은혜를 주기 위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이 날, 곧 크리스마스를 축하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 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7년 11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지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365-1 전화 552-8200) [비매품]